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빠르면 이달 결정

'3대 특수평가' 반드시 반영돼야

①대통령 공약 ②국가 전략노선 ③30년 숙원사업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운명의 기로에 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 분석을 완료하고 사업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 중이다. 빠르면 이달 중 추진 여부가 결정 난다. 30년 숙원이자 강원도 자존심 사업으로 분류되는 이 사업의 당위성과 추진배경 등을 2회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관련기사 3면

동서고속화철도 서울~속초간 노선도(안)



(상) 사업 당위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시발점

정부는 최근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성과를 가를 마지막 관문인 정책적분석(AHP)에 돌입했다. 그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비용/편익(BC) 분석은 사업 확정을 위한 수차례에 근접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얻기 위한 도 차원의 총력대응이 절실하다. 도가 기대를 걸

고 있는 것은 AHP 항목에서 사업특수평가 부문이다. AHP 매뉴얼에는 있지만 실제로 반영된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도는 사업 추진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포항영일신항 인입철도는 2010년 사업특수평가 반영으로 추진된 대표적 사업으로 꼽

다. 비상시 대체수송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특수성을 인정받았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이 부문에서 포항의 사례보다 반영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성현기자

2면에 계속

/ 동서고속화철도 빠르면 이달 결정 /



■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일자

- 198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선공약
- 예비타당성 조사(3회)

1차(2001.6월)	2차(2010.6월)	3차(2012.5월)
B/C 0.499, AHP 0.398	B/C 0.73, AHP 0.488	B/C 0.67, AHP 0.449

※B/C: 비용편익, AHP: 정책종합분석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 확정(전반기 착수): 2011.4월
-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13.8월~2014.12월 B/C 0.97 도출(주말·관광 수요 반영, 사업비 절감 등)
- 대통령의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천명: 2013.7월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확정(2014.4월) 및 조사 중(2014.5월~) ※예비타당성 조사(총괄: KDI, 수요: 서울대, 서울시립대, 비용: 태조ENG)
- 국회 정책토론회: 2015.2.10일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1차 점검회의(2015.9.23일)
- 이후 보완회의(2회), 실무회의(3회)

북극항로·동북아 경제권 선점에 필수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동북아 중심지 도약을 위한 필수 사업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남북 및 대륙철도망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주장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구성으

TKR·TSR 연결 현실 대안 동서 복합물류수송루트 구축

로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겠다는 구상이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경제·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권과 북극항로 선점으로 국가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미래 전략 노선이다. 항주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수도권을 통과

하는 동서연결 최단노선으로 동해 북부선 남측 일부 구간만 연결되면 바로 유럽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완공되면 속초항과 동해항을 중심으로 이미 운영 중인 도내 항만과 극동 러시아 항만 간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서해안~수도권~동해안-TSR~유럽을 잇는 철도와 해상 복합물류수송 루트가 완벽하게 구축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 절감은 물론 에너지·광물자원·농산물 유통 등 보다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위한 거대 단일시장 구성을 앞당길 수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2,500만 명의 수도권 인구나 물류가 유라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는 동서남북 연결 철도망이 비로소 완성되는 셈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30년 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때마다 말잔치로 끝나며 정치불신만 초래해 왔다. 정부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명운이 걸린 절박함을 단숨히 경제성 논리만 앞세워 지역 현안으로 치부해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 2016.06.13(월) 강원일보 】

법사위원장에 권성동 12년만에 도 출신 맡아



3선의 권성동(강릉·사진)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0대 국회 첫해 법사위원장을 맡

게 됐다. 1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권 의원은 국회 전반기 첫해 1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에 내정됐다. 권 의원은 13일 예정된 당 의원총회 추인 이후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식 임명된다. ▶인터뷰 3면

도 국회의원 중에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3선의 최연희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후 12년 만이다. 함께 경쟁을 펼쳤던 여상규 의원은 전반기 2년 차를, 홍일표 의원은 후반기 2년을 맡기로 교통정리됐다.

당초 법사위원장은 권 의원을 비롯해 여상규·홍일표 의원 등 3파전으로 경선이 예상됐지만 홍 의원이 경선 불출미를 전격 선언하자 당 원내 지도부는 권·여 의원에게 전반기를 1년씩 나눠 맡으라는 중재안을 제시, 성사됐다. 권 사무총장이 법사위원장까지 맡게 되며 도 현안 관련 입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일표기자 hphong@**

【 2016.06.13(월) 강원도민일보 】

춘천시청사 공사 개찰 1순위 청광종합건설

춘천시청사 건립공사 개찰 결과, 서울 업체인 청광종합건설이 1순위에 올랐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추정금액 549억122만원의 춘천시청사 건립공사 입찰에 전국 31개사가 참여해 청광종합건설이 1순위에 오르는 등 31개사의 순위가 정해졌다.

조달청은 청광종합건설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한 후 최종 공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춘천시청사 신축 공사는 3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중심제)가 도내에서 지자체로는 처음 적용되는 공사다.

시청사는 전체 연면적 3만9500여㎡에 지하2층~지상8층, 시의회는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조성된다.

안은복 rio@kado.net

강원조달청 이번 주 475억원 규모 입찰

161억원 지역 할당

강원조달청(청장 강대춘)은 이번 주 대관령(자항~횡계)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포함한 총 7건에 475억원 공사를 입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1억원은 지역제한과 지

역의무공동도급으로 묶여 도내 업체들의 공사 참여 기회를 높였다.

강원조달청은 올 들어 93건에 5492억원 규모의 공사를 입찰했으며 이중 43%인 2371억원이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풀렸다.

안은복 rio@kado.net

춘천시청사 공사 개찰... 이번주 후반 낙찰자가려질 듯

조달청은 지난 10일 춘천시 수요 춘천시청사 건립공사에 대한 가격 개찰을 집행하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개찰 결과를 보면, 모두 31개사가 투찰에 나선 가운데 청광종합건설이 예정가격 대비 78.049%의 투찰률로 저가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22개사가 80% 이상의 투찰률을 기록했다.

추정가격 428억원 규모의 이 공사는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공사로, 조달청은 수행능력 및 입찰금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후반 최종 낙찰자를 가릴 방침이다.

업계는 일단 80% 전후에서 낙찰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천지방조달청이 경기 시흥시 수요로 집행한 인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인천지구) 입찰에서는 유익이엔씨(대표 박광재)가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에 올랐다. 예정가격 대비 80.003%의 투찰률로 126억9461만6000원을 투찰했다.

또 경북 봉화군은 토일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가격 개찰을 집행하고 79.995%인 102억7380만1000원을 써낸 경일건설(대표 이종연)을 적심 1순위자로 선정했다. 경북 상주시가 집행한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조성공사 입찰에서는 투찰률 79.995%, 투찰가 96억6660만1800원을 적어낸 대연건설(대표 이상순)이 적심 1순위로 수주를 바라보게 됐다.

봉승권기자

조달청, 이번주 총 2475억 시설공사 78건 대기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이번주(6.13~17)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김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옥률~대룡) 건설공사 등 모두 78건, 2475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입찰 건수가 지난주 대비 22건 증가함에 따라 추정가격 기준 전체 집행금액도 전주보다 78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약 방법별로 보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대상이 2건, 적격심사 대상이 60건이며 나머지 16건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된다.

건설업계의 관심은 역시 종심제 물량으로, 오는 14일 김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입찰이 집행된다. 이 공사는 940억원 규모로 물량 및 시공계획심사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공사다.

이어 16일에는 법무부 수요의 속초교도소 신축공사에 대한 종심제 개찰이 예정돼 있다. 이 또한 일반공사로 추정가는 314억원 규모다.

적격심사 대상 중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중대형 공사 입찰은 5건이 집행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14일 260억원 규모의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수요기관 경북 울진군) 개찰을 집행하고, 15일에는 128억원 규모의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 건설공사(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입찰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 16일에는 131억원 규모의 보성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전남 보성군, 이어 17일에는 124억원 규모의 대관령(차항~횡계) 우회도로 건설공사(강원도)와 108억원 규모의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건축 및 조경공사(충남 예산군)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주에 전체 집행 건수의 약 73%인 57건의 입찰이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으로, 601억원 상당을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봉승권기자 skbong@